

보도설명자료

(16. 9. 26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'정부는 뒤로 빠지고...' '공자님 말씀' 철강·油化
구조조정案 (조선일보, 10.01)

1. 기사 내용

- 정부가 전면에 나서는 중국·일본 등과는 달리 우리정부는 뒤로 빠진 채 외국 컨설팅사의 밑그림대로 발표하고 구체적인 대안이 없거나 현실을 반영하지 않았다.
 - * "석유화학 88%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없고, 후판은 이미 업체차원에서 알아서 생산량을 줄여왔다"
- 경량소재(타이타늄·마그네슘·알루미늄 등) 육성방안은 '재탕'이다.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

- 이번 '경쟁력 강화방안'은 **업계의 컨설팅 보고서 내용** 뿐 아니라, **주요 연구기관의 정책보고서, 일본 등 최근 구조조정 사례** 등을 참조하고, **산업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들의 의견도** 반영하여 **관계부처 협의를 거쳐** 최종 발표된 것임
 - * 일본도 2014년 1월 시행된 「산업경쟁력강화법」에 따라 민간컨설팅을 반영한 「**석유화학산업시장구조분석보고서**」(14.11월)를 발표하고 민간의 자율적인 사업재편을 유도함
- 정부는 **공급과잉**으로 진단된 분야에 대해서는 기업이 **선제적인 사업재편**을 추진할 수 있도록 '**기업활력법**'을 통해 **R&D·금융·세계** 등 인센티브를 최대한 제공할 예정임



- * 사업재편 투·융자 지원자금(2.5조원, 산은) 및 우대보증(2천억원, 신보) 신설, 신산업 진출은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(5조원, 산은)을 활용 지원
- **업종별 감축분야**는 업계에서 컨설팅 등을 통해 이미 주지하고 있으며, **구체적인 감축 규모**는 업계가 컨설팅 결과 등을 참고로 **자율적으로 논의하여 결정**할 것임
- 이 과정에서 **합의 도출이 어렵거나 애로**가 있는 경우, **정부가 적극 중재·지원**해 나갈 것임
- 이러한 사업재편 과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**정부가 업계와 함께 주기적으로 점검·보완**해 나갈 계획임
- 이번 「경쟁력 강화방안」에는 '**고부가 첨단소재**', '**수소환원제철 등 친환경 공법**' 등 연구개발과 설비투자에 민간 합동으로 '23년까지 **총 1조 3천억원**을 투입하는 **새로운 지원대책**을 제시함
 - * 타이타늄 등 경량소재 개발 관련, '국가전략과학기술회의'(8.10) 이후, 구체적인 기술개발과제와 기업차원의 설비투자계획을 반영함
- 향후, 정부는 **산업구조조정 분과회의 및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**를 통해 철강, 석유화학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의 **진행상황**을 계속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겠음

※ 문의 : 산업통상자원부 철강화학과 김종철 과장(044-203-4280)

이재석 사무관(철강, 044-203-4285) 한종호 사무관(석유화학, 044-203-4284)